

### 초광역 재난안전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 승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난안전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전남·광주 역시 이러한 선진 안전문화를 지역 사회의 깊숙한 뿌리로 정착시켜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주민 참여형 예방활동을 엮어내야 한다. "내 이웃의 안전은 우리가 직접 지킨다"는 선순환 연대 의식이야말로 어떠한 첨단 기술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 예방 핵심이다. 통합특별시를 위해 '곡돌사신(曲突徙薪)'을 강조하고 싶다. 굴뚝을 꺾어 불티를 막고 아궁이 곁의 장작을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것과 같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살피고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 통합을 통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논의가 뜨겁다.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 지방소멸 위기를 넘겼다는 비전이 가슴 벅차지만, 그 눈부신 청사진 이면에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뼈아픈 현실이 있다. 바로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 및 안전 체계'의 경계음이다. 재난연감 등을 살펴보면 전남·광주에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매년 37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통합특별시로 인한 도시 팽창과 인프라 밀집은 재난의 대형화와 복잡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행정구역을 넘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광역 재

### 모두의 꿈·가능성 담아내는 큰 그릇 되길

#### 구제길 광주사랑의열매 회장



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어야 하며,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눔은 반드시 품어야 할 핵심 가치이다. 나눔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사는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자 공동체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다. 하나가 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우리 모두의 꿈과 가능성을 담아낼 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광주 사랑의열매는 복지사각지대 구석구석까지 나눔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진 지 꼭 40년 만에,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손을 맞잡았다. 2026년 7월 1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탄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의 결합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나눔과 기부 문화에도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균형발전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나눔을 통한 상생에서

### 새로운 미래, 사람 중심 공동체서 시작

#### 이영위 적십자 봉사 광주전남협의회장



적지 않다. 아무리 지역이 발전하더라도 이러한 이웃들이 소외된다면 진정한 발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따뜻한 온정이 살아 숨 쉬는 상상과 포용의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경제와 산업, 문화와 관광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과 가치가 함께할 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단 광주전남협의회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외되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살피며,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행정구역의 통합을 넘어 광주와 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고, 미래 세대에게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사람과 사람이 마음으로 연결되고, 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취약계층, 예기치 못한 위기 속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웃들도

### 합리적 갈등 조정·촉촉한 제도적 장치 필수

#### 이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



다. 이 과정에서 시민·도민의 권익이 소외되거나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통합에 따른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촉촉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시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중재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법률 안전망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매가시티로 새롭게 태어난다.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회다. 인구와 인프라의 결합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첨단 산업과 해양·농업 생태계의 시너지를 이끌어 내 청년들이 머무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러나 행정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각종 조례와 규정의 통합, 행정서비스의 조정, 개발사업과 재산권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

### 넉넉한 나눔·서슬 푸른 인권 하나 되길

#### 정병민 월드비전 광주전남본부장



이러한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상생의 소통을 통해 차근차근 통합해나갈 것이다. 끝으로 전남도민의 따스하고 넉넉한 나눔의 정서와 광주시민의 서슬 푸른 인권·연대의식이 하나로 녹아들기를 바란다. 무늬만 거대한 통합특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이 따뜻한 실질적인 '복지특별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파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눠던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그 찬란한 유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를 소망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전남·광주를 떠올릴 때 주먹밥, 대동단결, 그리고 '나눔과 연대'를 빼놓을 수 없다. 근대 이전은 물론 현대사에 이르러까지, 주류에서 소외된 필박과 가난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약자의 편에 섰던 전남·광주의 정의로운 정신은 오히려 타 지역과 해외에서 더 크게 주목받아 왔다. 이제 40여년 만에 다시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의 시대를 맞이한다. 다만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사업 형태, 인력 구성, 예산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질감이 존재하기에 초기 통합 과정에서 전통도 예상된다.

### 경제적 번영·민주주의 가치 꽃피는 도시

#### 윤복현 5·18기념재단 이사장



할 과제는 경제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광주·전남이 이제는 정당한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대규모 기업 유치, 미래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도 잘 살 권리가 있다.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K-민주주의의 산실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되고, 오월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통합시가 앞장서야 한다.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함께 꽃피는 도시, 그것이 통합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광주가 전남도에서 분리돼 광주직할시로 출범한 지 40년 만에 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재통합된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한 뿌리였던 공동체가 시대적 필요에 따라 나뉘었다가 하나로 모이는 역관·연대의식이 하나로 녹아들기를 바란다. 무늬만 거대한 통합특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이 따뜻한 실질적인 '복지특별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는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다. 파를 나누고 주먹밥을 나눠던 평화와 인권의 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그 찬란한 유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를 소망한다.

### 지역 소멸 넘어 대한민국 성장 선도 기대

####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도를 주도해서도 안 된다. 합의를 통해 명확하게 권한이 부여되고, 시민주도하에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그 권한이 행사되는 합의제행정기구 수준의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주권에 한발 더 나가는 것이다. 참사 예방도 중요하다. 학동 참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등은 적절한 예방 조치와 관리 시스템 부족이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다. 특히 갈리 부실을 비롯한 적시 점검 부족이 참사의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공공사업에 대한 공공감리제도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 동력은 지역 소멸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 기반을 창출하는 일이다. 중앙정부가 약속한 지원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시민이 결정하면 행정은 이행한다'는 민형배 시장의 정신이 행정전체에 녹아드는 새로운 시민주권 정부가 실현돼야 한다. 그동안 시민주권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시의회라는 대의기관을 통해서만 이야기돼 왔다. 이를 제대로 작동시켜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담기 위해서는 과거 시민참여제도의 재편 혹은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행정이 이 제

### 시민의 삶 촘촘히 돌보는 도시 거듭나야

#### 이상훈 광주 동구약사회장



생태계를 흔들고 환자 상담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약국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환자의 병력, 복용약, 생활 습관을 살피는 보건의료기관이다. 통합특별시는 조례를 통해 약국 개설 허가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지역 보건의료 균형과 공공성을 해치는 형태의 개설은 제한해야 한다. 공공심야약국도 두 배 이상 확대되기를 바란다. 응급실로 가지 않아도 약사의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불평은 줄고 의료비 부담도 낮아질 것이다. 지역 약사와 약국을 공공보건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제도 안에 담아낼 때 더 안전하고 따뜻한 생활공동체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민의 삶을 더 촘촘히 돌보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의료와 돌봄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금, 약국과 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약사를 통합돌봄 체계 안에 적극 고용해 방만 복약 지도, 약물 중복 점검,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연계 상담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약사는 시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며, 약물 안전을 지키는 생애 속 의료 인프라다. 또 하나 참고할 약국 남립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다. 대형 유통형 약국은 편의성과 가격 경쟁을 앞세우지만, 지역 약국

### 보편적 편안함·쾌적한 사람 중심 도시로

#### 강신행 한국유틸리티시험원장



면역력이 취약한 시민들에게 많은 공기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공적 책무다. 통합특별시의 행정은 효율성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실내 공기안전 솔루션 도입을 통해 구축된 청정한 공공 환경은 지역민들에게 통합의 효능감을 체감하게 할 것이며, 이는 통합특별시가 추구하는 미래도시 복지의 표준이 될 것이다. 통합특별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쾌적한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표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최근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 각종 바이러스 위험 등 실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복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누리는 '보편적 쾌적함'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시설부터 도입하는 '실내 공기안전 솔루션'은 매우 강력한 공공 복지 모델이 될 것이다.

### 통합특별시 '지속가능한 시민의 도시'로

#### 김재주 광주지속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도농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의 일자리·의료·교통 접근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합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다. 통합이 일부의 역사적 기회다. 성장이지 아닌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속가능발전은 현실이 된다. 무엇보다 통합시의 '의제'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통합시 출범의 청사진 역시 시민이 직접 그려야 한다. 전문가와 행정이 먼저 설계하고 시민이 동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통합되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이는 두 지역 시민들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역사적 기회다. 통합특별시가 진정한 미래도시로 나아가려면, 시정철학의 중심에 지속가능발전이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과 개발의 논리가 다시금 전면에서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의 진정한 가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철학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인프라에 예산의

### 청년이 꿈꾸지 못하는 지역은 미래가 없다

####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



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가능성이 안 되는 미래 일자리가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청년들에게는 여유가 없다. 노력만으로는 사회의 불평등을 이겨낼 수 없다는 무력감, 인공지능이나 피지컬시에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다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과거의 문법대로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고 확신할 수 없어서 몰래는 막막함까지, 그렇다면 새 특별시에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향해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청년들을 수혜자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을 이끌어 나갈 주체로 바라볼 때 지역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광주·전남에서 20만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났다. 청년들이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이유는 큰 변화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 때문일 것이다. 단지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수준에 머무는다면 청년들은 지역에서의 희망을 갖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역에서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 줘야 될지 차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단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다. 중장기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들을 지역에 안착시키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오일이 힘든 청년들에게 몇 년 후에 내 일

### 청년 미래 설계하는 환경·기반 마련 절실

#### 한지완 광주 북구 청년근로회 의장



그런 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청년들에게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기업이 모이고 산업이 성장하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될 것이다.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기업이 투자하며, 주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된다면 이번 통합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적인 모델로 기록될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우리 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에게도 더 큰 희망과 기회를 안겨주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 현재 광주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청년 공무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누구보다 남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명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이번 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변에는 취업과 진로를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친구들이 적지 않다. 원하는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결국 고향을 떠난 것이다. 떠나는 친구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